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VOL. 120 2024년 8월호



미래를 열어가는 매일 운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들!



〈사진 제공〉6기 최규선 학부모기자

100년의 세월을 담은 플라타너스 가득한 아름다운 숲 학교, 영천 임고초등학교,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줘서 고마워.

## 나무에 대하여

정호승

나는 곧은 나무보다 굽은 나무가 더 아름답다  
곧은 나무의 그림자보다 굽은 나무의 그림자가 더 사랑스럽다  
함박눈도 곧은 나무보다 굽은 나무에 더 많이 쌓인다  
그늘도 곧은 나무보다 굽은 나무에 더 그늘져  
잠들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와 잠이 든다  
새들도 곧은 나뭇가지보다 굽은 나뭇가지에 더 많이 날아와 앉는다  
곧은 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 구부러지는 것을 싫어하나  
고통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굽은 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 구부러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VOL. 120 2024년 8월호



**표지이야기**

미래를 열어가는 매일 운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들!

발행일 2024. 8.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소통협력관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총괄 소통협력관 홍종선

기획 홍보담당 장학관 이상철

편집 주무관 서옥란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054)805-3063

누리집 www.gbe.kr

디자인/인쇄 천마인쇄복사 053)817-4126

 [www.gbe.kr/news](http://www.gbe.kr/news)

 [www.instagram.com/gbe.gyo6](https://www.instagram.com/gbe.gyo6)

 [blog.naver.com/2mcool](https://blog.naver.com/2mcool)

 [www.facebook.com/gogogbe](https://www.facebook.com/gogogbe)

 [www.youtube.com](https://www.youtube.com) 검색창 ▶ **맛쿨머쿨TV**

**경북교육 꾸미기**

- 04 독립운동길 순례단, 5천 km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 06 해외 우수 고교 유학생 유치의 중심에서 변화를 이끌다
- 08 수능 모의평가로 수능 준비해요!
- 10 미래를 열어가는 매일운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들

**교육현장 이야기**

- 12 유, 초, 중, 고 교육현장 이야기

**경북아이 뽐내기**

- 16 진량초 태권도부 김윤, 전국 소체 금메달을 거머쥐다  
문덕초 여학생배구부, 전국 4인제 배구대회 2연패
- 17 영주제일고 사이클부, 전국 사이클대회서 종합단체 우승  
영덕고 축구부, 창단 42년 만에 전국 대회 첫 우승

**공감 더하기**

- 18 학부모기자단 가족 해양 캠프
- 20 독서 물결 넘실대는 학교
- 22 똥똥이 제자 승희와의 3박 4일
- 24 [교육칼럼] 아름다운 하루
- 26 [학부모 독자기고] 아이들의 장점을 먼저 보자
- 28 [학부모기자 글] 초등학교 입학 걱정 없습니다

**생생정보 나누기**

- 31 바로 쓰는 알쏭달쏭 우리말

-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따뜻한 경북교육>소식지는 [www.gbe.kr/news](http://www.gbe.kr/news)(경북교육소식 ▶ 소식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른쪽 지면 상단에는 시각장애인 및 외국인들을 위하여 보이스아이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무료 소식지(비매품)입니다.



따뜻한 경북교육 소식에 대한 원고와 기사를 기다립니다.  
홍보하고 싶은 사례, 학교 소식, 미담이 있으신가요?  
교직원이나 학부모 글·사진·그림 등을 소식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seokok7@gbe.kr](mailto:seokok7@gbe.kr)  054)805-3063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독립운동길 순례단, 5천 km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1910년 우리 민족은 국권을 상실하고 이후 36년 동안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였다.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1919년 3·1 운동 이후 더 가혹해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 상하이로 근거지를 옮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독립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큰 뜻을 품고 중국과 한반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해 세운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 공화정부다.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내무총장에는 안창호, 경무국장에는 김구를 선임했다. 해방되기까지 약 27년 동안 상하이,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구이양, 충칭까지 5천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고난의 행군을 이어갔다.

낮선 타국의 작고 허름한 청사에서 기약 없는 독립의 그날을 위해 하루하루 투쟁했을 독립투사의 심정을 과연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지난 7월 28일, 경북교육청 독립운동길 순례단이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출정식을 하고,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약 5천km에 이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항일유적지 탐방하는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번 여정은 코로나 19로 멈췄던 국외 순례단 활동의 재시작이라는 점에서 뜻깊은 의미가 있다.

순례단은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과 나라 사랑 동아리 회원들,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많고 나라 사랑 정신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 고등학생과 인솔 교사 등 총 37명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탐방지로는 상하이 임시정부 첫 번째 청사, 윤봉길 의사 의거지인 흥커우 공원, 자싱의 김구 선생 피신처, 난징 주화 대표단 본부, 충칭 연화지 임시정부 청사와 광복군 사령부 등이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이번 여정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과거를 돌아켜 보며 현재를 성찰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국의 독립운동길 순례단 참가 소감문

장서진 / 상모고등학교 1학년



중국의 상하이, 난징, 충칭을 순례하며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여정은 저에게 깊은 감동과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먼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첫 청사를 둘러보며,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분이 이곳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많은 계획과 결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어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활동하였으며, 특히 김구 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력과 희생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의지와 희생정신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난징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우리 선조들의 용기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난징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하며, 당시의 참혹한 현실과 그 속에서도 곳곳이 싸웠던 우리 선조들의 용기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난징 위안부 위안소의 벽에 찍힌 저보다도 작은 손자국들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증언이자, 그들의 고통

을 잊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속해서 진실을 알리고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난징 이제항 위안소 방문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으며, 역사를 바로 알고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충칭은 임시정부가 중일 전쟁 시기 피난한 곳으로, 독립운동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충칭은 중국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일본군의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였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독립운동가분이 이곳으로 피신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충칭 임시정부 청사는 그 시절의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조국을 되찾기 위해 불굴의 의지를 다졌던 독립운동가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임시정부의 활동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독립운동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발행한 독립신문과 다양한 활동 자료들은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며 독립운동가들의 열망과 의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6박 7일간의 여정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러한 역사를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선생님들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치하고자 합니다.



# 해외 우수 고교 유학생 유치의 중심에서 변화를 이끈다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내 최초로 해외 우수 고교 유학생 48명을 선발했다. 국내 학생들과 같은 입학전형을 거쳐 선발된 유학생들은 글로벌 수준의 직업교육을 3년간 이수하면서 기술 및 기능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이 되면 지역 산업 기술 인력의 부족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현재 몽골(8명), 베트남(28명), 태국(8명), 인도네시아(4명) 4개국 학생들이 의성유니텍고를 비롯한 한국해양마이스터고, 한국철도고, 한국국제조리고, 신라공업고,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명인고 8개 직업계·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일반계고등학교인 김천고등학교에서도 8명의 해외 우수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 시·도교육청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식

일재 2024. 7. 18.(목)

장소 호텔현대바이라한 울산

경상북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경북의 직업교육을 택한 아이들

이제 갓 중학교를 졸업한 10대 중반의 아이들. 부모님 곁을 떠나 언어도, 문화도 다른 한국으로의 유학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학생들은 철도 운행, 역무원, 항해사, 요리사, 여성 기술 엔지니어, 의료인 등 각기 다른 꿈을 이루기 위해 경북의 우수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선택했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유학을 희망한 학생들은 모두 600여 명. 그중에 현지의 심층 면접을 통과한 48명만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말이 서툰 아이들이 기숙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 친구들과 금세 친해지며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 5개 시도교육청,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18일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해외 유학생 유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는 유학생 유치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 유학생 유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분담,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 구축, 시도교육청 공동 실무 협의체 운영의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우수 유학생의 유치와 졸업 이후 지역기업으로의 취업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운영 시도교육청 협의체 대표인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과 교육적 성과에 대해 교육계의 관심이 더할 수 없이 크다.”라며 “유학생은 물론 국내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상호 연대와 협력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수능 모의평가로 수능 준비해요!



## 올해 입시, 수능 영향력 더 커진다

올해 대학 입시는 의대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등 유난히 변수가 많은 해이다. 이런 영향 탓인지,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들의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전형 외에도 수능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을 적용하는 대학이 늘어난다고 하니, 올해 수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할 수 있다. 재학생들은 평소 교과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수능 대비에도 함께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경북의 33명 선생님이 힘을 모으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수험생들의 대학 입시 수시 및 정시 전형 대비 진학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 경북교육청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지난 2월 27에 시작하였다.

출제위원단은 도내 고등학교 교사 중 전국 단위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33명을 공모를 통해 구성하였으며, 이번 시험 문제는 올해 시행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원칙과 같게 출제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올해 수능 마무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수능 마중물, 수능 모의평가 실시

이번 사업은 2025학년도 수능 체제에 기반한 국어, 수학 과목별 모의고사 2회분 분량의 문제지와 해설지를 도 교육청에서 직접 개발할 계획이다. 직접 제작한 모의고사는 경북 내 모든 일반계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일부(특성화 제외)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으며, 8. 29.(목), 10. 23.(수) 2회에 걸쳐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모의고사가 끝난 뒤에는 인터넷을 통한 문제 해설 강의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GBE 수능 방송’을 통한 해설 강의 일정 안내〉

회차	시험 일시	강의 공개 일정
1회	8. 29.(목)	8. 29.(목) 16시
2회	10. 23.(수)	10. 23.(수) 16시

※ 맛쿨맛쿨TV 탑재 예정

## 경북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11월 14일(목)에 실시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느덧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숨 막히는 무더위로 체력 관리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능 준비기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분히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비바람에 젖으며 꽃잎을 피웠듯이, 지금 수험생이 흘리는 땀방울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맺을 것이라 기대하며, 경북교육가족 모두는 수험생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한다.



♥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예쁜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경북교육가족 모두는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

# 미래를 열어가는 매일 운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들

## 우리 아이들의 현실

누구나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청소년 ‘권장 운동량 미충족 비율’에서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146개국 중 1위를 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많을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시간이 많지 않은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여러 학원을 전전하며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 심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현실이다. 휴식 시간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즐기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 미래를 열어가는 매일 운동

올해부터 경북 지역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매일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줄여서 ‘미래 열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침 시간, 틈새 시간, 정규 교육 과정, 방과 후, 주말 등 다양한 시간을 이용해 주 5일, 1회 60분씩 운동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사업이다.

## ‘미래 열매’로 영그는 부석초 아이들

전교생 45명의 작은 학교, 부석초등학교에선 전교생이 매일 아침 걷기운동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한다.

교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친구들과 함께 바른 걸음으로 운동장을 두세 바퀴 걷고 나서야 교실로 향한다.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간편한 운동 중의 하나지만, 그 어떤 운동보다도 건강에 효과적이다. 올바르게 걸으면 자세 교정과 체중 감량,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바른 자세로 걷지 않으면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신체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익힌다는 것은 손쉽게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부석면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학교 외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경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부석초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학교 체육관 '뜯돌관'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능숙하게 타며 행복해한다. 언니, 오빠들은 동생들이 인라인스케이트화를 신는 것부터 안전모를 쓰는 것까지 옆에서 살뜰히 챙기며 도와준다. 혼자 '뜯돌관'을 뽕뽕 누비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것도 재미있지만 친구, 동생들과 함께 기차놀이를 하며 타는 것도 재미있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4학년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고깔 모양의 콘이 놓인 트랙을 돌며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다. 더운 날씨에 얼굴이 빨개지도록 자전거를 탄 나옴이는 친구들과 함께 마시는 차가운 음료 한잔에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다.

5, 6학년 학생들은 그동안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에서 열심히 익힌 원바운드 배구를 선생님들과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친구들의 서브와 리시브, 그리고 호민이의 스파이크 공격에 선생님들께서도 깜짝 놀라며 감탄하신다. 배구와 원바운드 배구를 배우면서 친구들은 "자~ 집중하고! 열심히 해보자!"라는 응원의 말을 서로 해주고, '마이~!'라고 외치며 친구들에게 내가 공을 처리하겠다고 신호를 보낸다.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에 마음이 뿌듯해진다.

부석초등학교 아이들처럼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경북형 매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건강과 인성, 학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 .SCHOOL NEWS.

## 알쏭달쏭?!

### 책 속에 숨어있는 퀴즈를 맞혀라!

청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명정희)은 7월 17일, 유치원생 52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서퀴즈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원아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찾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되었다. 원아들이 직접 선정한 '슈퍼 토끼', '감기 걸린 물고기', '이상한 손님' 등 다양한 책을 읽고, 사회자가 내는 OX 퀴즈를 풀며 독서왕을 가렸다.

특히 최종 우승을 차지한 은하수반의 정00 학생은 '독서왕이 되고 싶어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소감을 전했고, 달님반의 이00 학생은 '더 어려운 문제도 맞힐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명정희 원장은 '유치원에서 책은 아이들에게 다소 소외된 놀잇감이다. 많은 아이가 글을 잘 모르고 읽기가 어려웠다.'라며, '오늘 대회가 아이들이 책에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립대구기상과학관에서 놀아요!

옥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재휘) 원아들은 7월 19일에 국립대구기상과학관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학습은 유아들이 기상과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기상과학의 발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원아들은 날씨 활동지를 작성하고, 기상과학에 관한 사이언스 쇼를 관람했다. 또한, 다양한 전시관을 돌며 공기와 바람, 날씨, 태풍, 지진 등을 체험을 통해 익혔다.

특히, 기상캐스터 체험에서는 최00 유아가 '커서 기상캐스터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체험은 아이들에게 기상과학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 • SCHOOL NEWS.

### ‘꼬마 환경 박사들의 낙동강 살리기 처방전 발급’ 활동

길안초등학교(교장 이영록)와 안동강남초등학교(교장 이경순)는 7월 4일, 도농 이음 교실에서 ‘꼬마 환경 박사들의 낙동강 살리기 처방전 발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길안초 1학년과 안동강남초 1학년 3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생태 전환 실천 수업으로,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 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EM 흙공<sup>1)</sup>을 만들고 환경보호 피켓을 준비하는 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환경보호 방안을 배웠다. 이후, 길안천에서 골부리 종패를 방류하고 만든 EM 흙공을 던져보며 하천의 정화 작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안동강남초 1학년 박00 학생은 “골부리를 처음 보고, 우리가 만든 흙공이 물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이 무척 신기하고 뿌듯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1) 유용한 미생물군과 황토를 반죽한 후에 야구공 크기로 동글게 만들어서 발효시킨 것



### ‘시’가 있는 학교, 시 올림 낭송

화목초등학교(교장 김문교)는 예술적 소통 능력을 증진하고, 감정교류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6월 20일 청송 오토캠핑장에서 ‘시 올림 낭송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국어 교육과정과 학교 글램핑 체험학습과 연계되어 진행되었으며, 시집 탐독, 동시 필사, 시 낭송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학급문고와 도서관에서 읽은 다양한 시 중에서 감명 깊은 작품을 선정한 후, 시를 필사하여 자신만의 무드등을 완성하였다. 완성한 무드등의 불빛을 켜고 시를 낭송하며



다양한 시를 체험하고 감상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3학년)은 “친구, 동생, 언니들과 함께 시를 읽어보니 시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 다음에도 다양한 시를 읽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 ● SCHOOL NEWS.

###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 “우리 모두 함께라서 좋아요!”

수륜중학교(교장 송경미)는 지난 6월 20일,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의 하나로 수륜초등학교와 함께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우리 모두 함께라서 좋아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취감을 주고, 상호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2021년부터 이어온 공동교육과정은 두 학교가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줄어드는 학생 수 문제도 해결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주고 있다.

이번 클라이밍 체험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극복하는 기회를 주었다. 특히 수륜중학교 1학년 김재영 학생은 “초등학교 때는 3간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중학교에서의 체험을 통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라며 “다음에는 더 어려운 코스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 여름 방학 ‘신(新)서당 캠프’

명인중학교(교장 백경애)에서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에 걸쳐서 여름 방학 캠프를 실시하였다. 첫날 개강식 행사로 전통 의상을 입고 우리나라 고유의 서당 문화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보냈다. 2주간의 캠프 기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의 교과 학습과 물놀이장 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야구장 관람 등 다채로운 활동들을 하게 된다.

백경애 교장은 “2021년부터 실시되어 온 신(新)서당 캠프는 여름과 겨울 방학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교과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캠프이다. 학생들이 이 캠프를 통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방학이 아닌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방학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캠프의 다채로운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즐겁고 행복한 방학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 SCHOOL NEWS.

## 전문 직업인 초청 '맞춤형 직업특강'

영주제일고등학교(교장 최강호)는 영주시와 함께 6월 12일, 17일 이틀간 카페 녹스고지에서 영주제일고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인을 초청한 '맞춤형 직업특강'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1부는 학생들이 직업과 학업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영주제일고를 졸업한 매일경제 정치부 박윤균 기자와 최원석 변리사가 답해주는 질의 응답식 토크 콘서트로 진행했다. 박윤균 기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부는 영주 출신 싱어송라이터 이폴숲(제일고 졸업)과 오예린(선영여자고 졸업)의 공연, 손땅콩의 퓨전국악과 최교



석의 마술공연으로 그동안의 입시 준비로 지쳐있던 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해줬다. 이날 특강 장소는 영주제일고등학교 졸업생 임종빈 녹스고지 대표가 제공했다.

최강호 영주제일고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공부 과정을 되돌아보며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통계로 바라보고 해결한다.

교육부 지정 '교과(경제-수학 융합) 특성화 학교'인 영광고등학교(교장 박영수)는 7월 17일, 본교에서 '제9회 빅데이터 통계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올해 9회째를 맞은 프로젝트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3명 이내의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총 206명이 참가하였으며 1차는 서면 심사, 2차는 발표심사로 진행되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주제를 직접 정해 통계자료·해결 방법에 관한 내용을 한 장의 포스터로 완성하는 활동으로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이어야 하며, 뚜렷한 목표와 통계 결과와 결론이 있어야 한다. 자료를 수집·처리·분석하는 통계 능력과 포스터의 구조·색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창의 능력, 현상에 대한 통찰력과 관찰력 등의 융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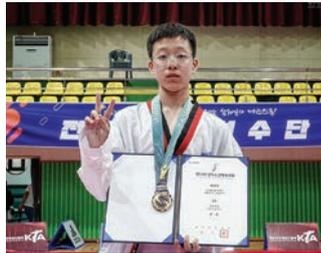
경산  
진량초



### 진량초 태권도부 김윤, 전국 소체 금메달을 거머쥘다

진량초등학교(교장 현금환) 6학년 김윤 학생이 지난 5월 26일 전남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종목 50kg 이하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김윤 학생은 평소 학교 수업 후 매일 태권도 훈련에 매진하며 성실히 대회를 준비했으며, 뛰어난 체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결승전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하였다.



현금환 교장은 “우리 학교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리스트가 나온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선수들의 열정과 학부모님들의 관심 그리고 지도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이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포항  
문덕초



### 문덕초 여학생배구부, 전국 4인제 배구대회 2연패



창단 3년을 맞이한 문덕초등학교(교장 문석주) 스포츠클럽 여학생배구부는 6월 9일 문경에서 열린 2024 전국 4인제 배구대회에 참가하여 문덕 A팀이 우승, 문덕 B팀이 3위를 차지하며 대회 2연패라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대한배구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문경시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초등부 7개 팀이 참가하였다. 문덕초는 두 팀 모두 예선을 통과하여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하였으며, 문덕 B팀은 3위, 문덕 A팀은 결승에서 평산초 A팀을 세트스코어 2:1로 꺾고 대회 2년 연속 우승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대회 최우수선수로는 우승팀 김라희 학생이 선정되었고, 페어플레이상은 우수빈, 전윤아 학생이 수상하였다. 최우수 지도자상은 지도 교사인 이상로 선생님이 받았다.

영주  
제일고



## 영주제일고 사이클부, 전국 사이클대회서 종합단체 우승

영주제일고등학교(교장 최강호) 사이클팀은 6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음성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2024년 음성 전국 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종합단체 1위를 차지하였다.

스프린터 부문에서 3학년 박준선 선수가 부별 신기록 및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1학년 윤석현 선수는 단체 스프린터와 경륜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1km 독주 경기에서는 아쉽게 2위를 기록하면서 최우수 신인선수로 선발되었다.

스프린터 경기에서 3학년 김현우 선수는 단체 금메달과 개인 동메달을, 제외 경기에서는 1학년 김세원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팀의 단체 종합 1위에 이바지하였다.

박준선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으며, 오는 8월에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영덕고



## 영덕고 축구부, 창단 42년 만에 전국 대회 첫 우승



영덕고등학교(교장 손동주) 축구팀은 8월 2일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제61회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3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울산 학성고 FC를 결승에서 3대 2로 꺾으며 창단 42년 만에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영덕고 축구팀은 최근 3년간 각종 대회에서 잇따라 준우승을 차지하며 축구 명문고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국내외 프로구단의 영입 제의가 물밀듯이 이뤄지고 있으며, 영덕은 신태용, 박태하, 김진규 등 다수의 국가대표를 배출하며 축구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 학부모기자단 가족 해양 캠프



지난 2024년 8월 8일부터 9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이 주최한 학부모기자단 가족 해양 캠프가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캠프에는 학부모기자단 24명과 그들의 배우자, 여름방학을 맞아 함께한 자녀들까지 총 82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해양 스포츠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었다.

캠프 첫날, 참가자들은 경북 영덕의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제트보트, 바나나보트, 래프팅 등 다채로운 해양 스포츠를 즐기며 짜릿한 모험을 경험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 체험은 바다에서의 자유와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감이 한층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시원한 바닷바람 속에서 펼쳐진 이 활동들은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저녁에는 가족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마련되어, 참가자들 모두가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가족 협동 게임을 비롯해 아빠, 엄마가 참여하는 특별 게임, 그리고 아이들의 장기자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가족 단위로 팀을 이루어 협동심을 발휘하는 게임들은 활기찬 분위기를 더욱 돋우며,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순간을 연출했다.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임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의 장기자랑 시간에는 각양각색의 재능을 선보여 참가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강의는 소비자행복센터의 강수현 교수가 진행한 학부모 경제교육으로, 자녀와 함께 실생활에서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강수현 교수는 강의 중 학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궁금해 했던 경제 관련 질문들을 받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이 강의는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자녀와의 경제 교육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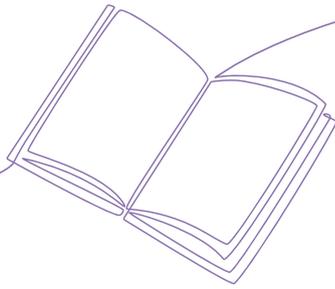
이어진 두 번째 강의에서는 '강남 엄마의 못된 자녀 교육법'의 저자로 유명한 최윤주 박사가 초청되어, 자녀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했다. 최 박사는 자신의 자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가 강남의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여 봉화의 산림과학고에 입학하고 10대에 공기업에 취업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현실적인 조언과 성공 사례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큰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해양 스포츠 체험을 넘어,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해양수련원의 실제 학생 해양 수련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학부모기자단은 경북교육청 현장을 몸소 체험하며,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학부모기자단은 경북교육청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글과 영상 제작을 통해 경북교육청의 누리소통망(SNS)에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그들에게 경북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이번 캠프가 남긴 소중한 경험들은 참가자들에게 경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독서 물결 넘실대는 학교

정현주 / 법전중앙초등학교 교사

유튜브 숏츠와 인스타그램 릴스로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책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게 할 방법은 없을까?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삶에 스며드는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법전중앙초등학교의 마을 연계 독서교육'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 시끌벅적 신나는 도서관에 놀러 오세요!

봉화군에 있는 전교생 23명의 작은 학교, 법전중앙초등학교에 동네 할머니들이 총출동하셨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도서관 주간 프로그램 중 '할머니, 우리가 책 읽어드릴게요,'라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학교를 처음 방문하신 할머니들과 어색함도 잠시, 법전중앙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마을의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책 읽어드리기, 그림책 퀴즈 풀기, 장기 자랑 등을 선보였다. 또, 할머니들의 무거운 어깨를 작은 손으로 꼭꼭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행운의 돌림판을 돌려 양손 가득 상품도 받아 가시도록 했다. 행사 내내 할머니들의 표정에는 행복함과 대견함이 가득했으며, 학생들 또한 행사 계획과 진행을 법전 학생 자치회인 '다모임'에서 추진하였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되었다.

학생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행사를 통해 책을 매개로 타인과 정을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으며, 도서관이라는 장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게 되었다. 앞으로도 법전중앙 도서관이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길 기대해 본다.



## 학부모 독서 동아리 ‘느티나무’가 읽어주는 그림책 이야기



법전중앙초등학교는 올해 4월부터 학부모 독서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대부분이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마을 주인이기에 법전면의 상징인 느티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었던 추억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동아리명을 ‘느티나무’로 정하였다고 한다.

학부모 독서 동아리 ‘느티나무’는 평소 책 읽기와 자녀들의 독서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9명이 주축이 되어 자녀들에게 읽어줄 그림책을 선정하고, 독서하는 가족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법을 나누는 등 독서를 통한 자녀 교육법을 공유하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자 매월 2회 아침 활동 시간에 학교를 방문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엄마, 아빠 책 읽어주세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책이기에 숨죽이며 책의 내용에 집중하였으며, 책을 읽어주러 오신 부모님 또한 자녀와 소통하는 통로가 하나 더 생겼음에 보람을 느꼈다.

학부모 독서 동아리 ‘느티나무’는 학부모 독서교육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전마을의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 우리 마을에도 책방이 있네?! 마을 책방 나들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책을 시내 대형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한다. 이에 동네 소규모 책방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고유한 콘셉트로 운영되는 지역의 독립 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 마을에도 ‘잔디마당 열린 책방(대표 김영자)’이라는 작은 서점이 있어 법전중앙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마을 책방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서점은 산골 마을 열린 책방이라는 애칭답게 나지막한 숲과 너른 정원, 알록달록한 책방 건물로 이루어져 시골 책방의 아기자기한 느낌을 드러내고 있었다. 학생들은 서점에서 책방 둘러보기, 책 구매하기,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즐겼다. 그중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트리하우스’라는 장소로 이곳은 학생들이 마치 나만의 비밀 아지트에서 책을 읽는 기분이 들도록 만들었다.

이렇듯 법전중앙초등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마을 연계 독서교육은 학생들이 책 읽기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삶과 늘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도록 한다. 학생의 생활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이야말로 학교가 강조하는 ‘독서의 생활화’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다. 마을로 책을 읽는 법전중앙초등학교의 독서교육이 2학기에는 또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질지 기대되는 시점이다.





# 또또 들들이 제자 승희와의 3박 4일

박샛별 / 예천여자고등학교 교사



이번 '우리는 단디짜꿍' 사제동행 해외체험 연수 공문을 보자마자 떠올랐던 사람은 바로 작년 담임반 또또들이 제자 승희다.

가족이나 친구와 해외여행을 떠나면 난 어김 없이 몸에 탈이 나곤 했다. 그런 내가 승희와의 해외여행을 결심하게 된 건 걱정과 불안에 찬 승희 때문이다. 승희와의 여행이 결정된 후 혹시나 나의 건강 때문에 망칠까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주말마다 아파트 헬스장을 다니며 근력을 키우고 집 앞 산책로를 열심히 걸었다. 잠들기 전 무릎과 어깨에 파스를 붙여가며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지 조금씩 체력이 생겼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해외체험 연수가 시작되었다.

일본에 도착해 맨 먼저 찾은 곳은 동양 최대의 목조 건물 동대사. 주차장으로 가던 길 차창밖으로 수많은 사슴이 자유로이 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심지어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에 엎드려 쉬는 모습은 기이하기까지 했다. 도시와 동물이 어우러진 보기 드문 낯선 장면. 생소한 일본의 집과 풍경들. 그리고 따가운 여름 햇살에 선명하게 빛나는 하늘. 승희의 열



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언제 또 선생님과 일본에 와서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지...” “나도 똑같아, 언제 또 제자와 일본에 와보겠니. 일본 거리를 이렇게 함께 걸어다니...” 승희와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문득 이문재 시인의 ‘농담’이 떠올랐다.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날, 연수에 함께한 사람들과 3일간의 여정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 차례가 되어 막상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긴장이 밀려왔다. “이번 체험을 신청하면서 떠오른 사람은 바로 승희였어요.” 내 말을 듣고 있던 승희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도 금세 눈물이 고였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과 생활하는데 어찌나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운지, 왜 선생님들이 체험 연수를 신청하게 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승희 차례가 되었다. 우느라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차분하게 이번 연수에 오기 전 자신의 상황과 고민에 대해 말을 시작해 나갔다.

“이번 연수를 통해 다음 학기에 꿈을 향해 새롭게 도전할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승희의 말이 끝나자 다른 선생님들은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을 건네주셨다. 학생들에게 단순한 해외여행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순간이었다.

승희는 이번 연수에서 처음 만난 동갑내기 주작가(글쓰기 매력에 푹 빠져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인 아이)와 여행 내내 사진을 열심히 찍던 사진작가 오빠(전기기술 전문가로 성장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아이)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꿈과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승희는 통통 부은 눈을 비비며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사진작가 오빠 아시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며 각자의 꿈을 나눴을 것이다.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낯선 이와와 교감과 나눔이 승희에게 훨씬 더 큰 의미를 남겼을지 모른다.

제자와의 행복한 해외체험 연수를 마치며 문득 ‘참으로 당신과 함께 걷고 싶은 길이었습니다.’란 조병화 시인의 ‘산책’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교육칼럼

# 아름다운 하루



김주완

시인, 철학박사, 전 대구한의대 교수

〈아름다운 하루를 살자〉, 눈뜨자마자 이런 다짐을 루틴으로 하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 ‘역동적으로 살자’, ‘순리적으로 살자’ 이러한 다짐도 있을 수 있다. 전자는 동물적이고 후자는 식물적이다. ‘보람차게 살자’, ‘신나게 살자’ 이런 다짐은 의욕적이긴 하지만 진부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남으로부터 피해를 입지도 말자’ 이런 다짐은 도덕적이거나 전투적이다. 무릇 다짐이라는 다짐들에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힘이 많이 들어가면 어느새 인간은 사라지고 힘만 남는다.

〈아름답게 살자〉는 자기 다짐은 부드럽다. 도덕적이거나 전투적이지 않고 진부하지도 않다. 〈아름다운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만들어지는 것일까?

삶은 본질적으로 물질 반, 정신 반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으로서의 인간도 그러하다. 몸이 반이고 정신이 반이다. 그러나 삶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다. 물질인 집에서 자고 일어나 물질인 아침 식사를 하고 물질인 자동차를 타고 출근한다. 직장에서 하는 일도 대부분이 물질이 관련 있다. 직장인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성과지상주의는 대개 물질적 가치로의 환산에 의존한다. 그런데 물질은 물질이어서 스스로 작용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지도 못한다. 물질적 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동원

되는 것이 정신이다. 정신은 묘안과 계책을 생각해 내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론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이 물질에 봉사하는 상황에서 물질의 노예가 된 정신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채찍질로서 스스로 다짐을 만든다. 따라서 인간이 의지하는 대부분의 다짐은 물질을 추구하는 다짐이 된다.

삶의 현장에서는 인간의 물질욕이 상호 충돌하여 갖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정의와 공정이다. 정의와 공정은 법률로써 규정될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의와 공정의 더 튼튼한 기반은 도덕이다. 도덕감이 마비된 시대라면 어떻게 될까? 법치가 자의성에 의존하여 증발한 현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기주의와 연고주의가 횡행하는 사회라면 어떻게 될까? 통제되지 않는 힘이 무자비하게 지배하고 서열화되는 곳은 자연 상태의 정글이다. 정글에는 인격이 없다. 불행하게도 현대 한국 사회는 이처럼 불길한 징후들이 농후하다. 표면적 정의와 이면적 부정의, 표면적 공정과 이면적 불공정이라는 이중 구조에 지금의 한국인은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가운데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현실적 고통에 시들어 가는 꽃송이가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정신, 현실적 고통을 벗어나 정신이 정신의 주인이 되는 자주적 정신을 되찾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의 하나가 <아름다움>으로 시선을 돌리는 일이다. 독일의 현대 철학자 니콜라이 하르트만은 그의 미학 이론을 전개하면서 <미적 소유의 법칙>을 말한다. '모든 대상은 아름다운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오로지 볼 줄 아는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다. 미적 소유는 물질적 소유의 반대편에 있다. 골목길 담장 위에 흐드러지게 핀 장미꽃의 물질적 소유자는 그 집의 주인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지나가던 행인이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 하염없이 감상하고 있다면 그 장미꽃의 미적 주인은 바로 그 행인이다. 미적 소유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볼 줄 아는 사람,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

을 소유하는 자는 심미감이 고양되어 정신의 해방과 자유, 그리고 행복감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아름다운 하루를 살자>고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물질이 아닌 정신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세상에는 아름다움이 넘쳐난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가련하여 애뜻하게 보이며, 보복 운전으로 진로를 위협하는 무뢰한도 그가 가진 강박증이 떠올라 불쌍하게 보일 것이며,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편파적 대우에도 그의 험량에 대하여 동정심이 생길 것이다. '가련미'라고 하는 것이다. 동료가 입는 오래된 청바지에서는 신선한 푸름이 느껴질 것이며, 나를 헐뜯으려 돌아서서 나누는 주변인들의 뒷담화도 산들바람처럼 상쾌하게 느껴질 것이다. '신선미'와 '여유미'라는 것이다. 내가 오늘 살아있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이다. 그러나 나는 살아 있고, 살아 있으니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아름답지 아니한가.

혹자는 <성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인은 성인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성인이라면 저절로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성인이 아니기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고, 마음만 먹는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하루를 살자>는 다짐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도파민과 다이돌핀은 상대방의 뇌 속이 아니라, 바로 나의 뇌 속에서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쪽인 정신이 다른 반쪽인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일상의 전쟁 같은 상황을 건널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이것이다. 하루 만큼씩만 살 수 있는 우리의 하루,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아름다운 하루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 아니겠는가.





학부모 독자기고

# 아이들의 장점을 먼저 보자

유병화 / 경북 안동시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 간의 유대, 친지와 친구 간의 애뜻한 마음,  
서로의 장점만 바라보는 여유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서로들 먹고 살기가 각박해서일까?

**참 안타깝고 딱딱하지만 그래도 한치의 마음만이라도 좀 더 열어 돌아보면 어떨까!**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아빠와 함께 산에 가기’라는 거창한 행사를 한다고 했다. 산도 가고 거기서 김밥도 먹으며 즐긴다는 계획이었다. 초대장을 들고 와서

**“아빠 이번에 안오면 나 삐칠 거야?”**

라면서 샅쭉해지는 일곱 살배기 아들놈을 보니 마음이 약해(?)진다. 나는 성격상 원래 산이나 낚시 같은 것을 귀찮아 하는, 약간 게으른 아빠였으니 아들의 그런 다짐이 이상해할 것도 없었다.  
문득 아이의 일로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게 쑥스럽고 어색해서

**“토요일 날 아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라면서 얼버무렸다. 그러나 산행 일자가 다가올수록 그동안 아이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아이와 함께 약속된 산으로 향했다. 한여름을 나는 나무와 산속 풍경이 조잘대는 어린이와 함께 따라나선 엄마 아빠들을 반갑게 맞는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헛터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거기서 유치원 선생님은 아빠들에게 미리 준비해 온 팸플릿 여백에 자신의 아이들 장점 스무 가지를 쓰라고 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 함께 많이 놀아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인지, 나는 이날만은 아이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장점 스무 개 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신이 나 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이들이다 보니 높은 꼭대기까지는 못 가고 중간쯤에서 멈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거기서 아빠와 아이가 함께 본 엄마의 장점 서른 가지를 쓰란다. 열 가지, 스무 가지도 아니고 서른 가지라니... 이건 솔직히 어려운 과제였다. 아이는 엄마가 뽀뽀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자잘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장점들을 많이 열거해도 서른 가지를 채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평소엔 늘 장점보다는 단점을 크게 보고 살았었는데... 어쨌든 숫자상으로야 서른 개를 다 채웠다. 산에서 내려와 집에 도착한 뒤 아내에게

**“이거 한번 읽어봐”**

하면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아내의 장점 서른 가지가 적힌 글을 전해주었다. 금방 아내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감돌았다.

**“당신 이거 생각해 내느라고 고생 꽤 했겠네요.”**

하며 연신 기분이 상기되더니, 모처럼 가족끼리 외식을 하자고 했다.  
아내는 어느새 큰 부자라도 된 듯이

**“잘나지도 못한 아내의 장점을 찾아 모범 답안 쓰느라 고생했으니 내가 쏘주 한잔 살게요.”**

라고 했다. 우리는 흔히 가족생활에서 서로의 장점들을 찾아서 복돋우고 격려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듯싶다. 장점으로 인정해야 할 일은 당연한 의무쯤으로 여기게 되고, 반대로 어쩌다 드러나는 단점은 실제의 크기보다 더 크게 보기 십상이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쪽이다. 저쪽이라 하고 구분을 지을 수 없이 생각하기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한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서 꾸지람이나 단점보다 좋은 점, 잘하는 점, 장점부터 먼저 보는 눈을 갖자.



학부모기자 글

# 초등학교 입학 걱정 없습니다!

김지원 / 경북교육청 6기 학부모기자

“우리 아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국·영·수 선행 학습은 얼마나 시키고 보내야 할까?”

“아이의 답임 선생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혹시나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의 입학 앞둔 예비 초등 유치원 학부모와 아이를 갖 입학시킨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가득하다.

이러한 질문과 고민은 아이의 첫 학교생활을 준비하는 예비 초등 학생 학부모라면, 처음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1학년 학부모라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이 아이가 초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2024학년도 유·초 이음 학기 시범유치원으로 선정된 농소유치원(원장 지상자)은 6월 25일(화) 유치원 학부모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초 이음 학기 보호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초등학교 입학 준비와 관련된 질문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아이의 초등학교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번 보호자 교육은 총 2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1학년이 쓴 1학년 가이드북」의 저자이자, 36년 경력의 ‘1학년 전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前 초등교사 최순나 강사님이 교육을 이끌어가셨다. ‘초등학교 입학 걱정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참석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피부를 위한 미스트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유·초 이음 교육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에서의 경험과 배움이 초등학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학 후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한 교육으로 교육기관(지역사회, 학부모 등)이 상호 존중과 협력 하에 교육과정을 연계해 설계하고 함께 실천하는 교육이다.

놀이를 배우는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유·초 학부모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주신 농소유치원 지상자 원장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보호자 교육이 시작되었다.

“농소유치원과 농소초등학교는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할 때 적응력을 높이고 원활한 전이를 지원하기 위해 1년 동안 3~4회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질 높은 놀이 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언제 어디서나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 걱정 없습니다.

36년 교직 경력의 ‘1학년 전문 교사’라는 별명을 가진 최순나 강사님의 거침없는 입담 덕분에 1시간의 강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1학년 전문 최순나 강사님은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와 초등 1학년 학부모의 마음을 모두 꿰뚫고 있었다.

### 안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글자를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는 받침 없는 글자는 읽는 데 쓰는 그것은 못 해요. 괜찮을까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많은 어머니가 하는 질문에 최순나 강사는 단호하게 답한다. “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안 괜찮습니다!”는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아이가 이러한 부족함을 극복하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학교와 유치원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학교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속상함도 느끼며, 도전하고, 실패도 해보는 경험을 통해 아이는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고 해결해 주면 아이는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된다.

“우리 아이 다 괜찮게 해서 학교 보내면 그건 진짜 쓸데없는 짓이에요. ‘학교는 아이가 속상해해 보고 힘들어해 보는 곳이다’가 전제예요. 어떤 배움도 힘들지 않은 건 없어요.”

### 짜장면 언제까지 비벼주실 건가요?

아이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아이에게 음식을 비벼주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그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아이는 스스로 해볼 기회를 잃게 된다. 심지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이 인생의 주인은 아이이다. 엄마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진짜 사랑이고 양육인지, 아이의 권리를 빼앗고 아이가 성장할 기회를 놓

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마음 없이 학교에 오는 아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더구나 저 마음은 흔히 말하는 모범생보다 부족한 아이일수록 강하다.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고,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적어도 이 세상에 딱 한 명, 엄마는 알아줘야 한다. 글자 모르는 아이, 속상함은 느낄 수 있지만 영원히 글자를 모을까? 아니다. 엄마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어릴 때 글자를 빨리 깨치는 것은 ‘엄마의 기쁨’, 거기까지이다.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눈빛, 에너지에 엄마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한다.

### 놀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진짜 노는 부모

인생에 있어 학부모, 그 10여 년의 시간은 진짜 찬란한 시기이다. 아이가 있다는 핑계 덕에, 학부모로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아이가 아니었으면 가지 않았을 서점도 자주 가고, 아이가 아니었으면 가지 않았을 도서관도 자주 가고, 아이 핑계로 아이랑 그림책도 자주 읽는다. 아이의 엄마



로 살았기에, 아이라는 선물 덕분에 내 행복, 내 행동, 내 삶의 만족감이 자꾸 높아져야 한다. 아이에게 최고의 부모는 아이가 중학교쯤 될 때, 다시 대학에 가는 부모이다. 시험 기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모, 먼저 식탁에 앉아 과제를 하는 부모, 그걸 보는 아이는 나쁜 길로 빠질 수 없다. 아이와 함께 아이의 학부모로 지낼 기간을 행복하게 살아보자.

### 엄마가 진짜 해야 할 3가지

잠 좀 재우고, 괜찮은 거 좀 먹이고, 그다음에 토닥토닥 충분히 안아주고.

이 세 가지를 충분히 하고 학교에 보내자. 아이들은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 동안 선생님을 만나고 있다. 제발 집에서는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가 기다려야 한다. 배우는 건 목숨 걸고 학교에서 다 배우고, 집에서는 푹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 내 아이가 그 교실의 주인공으로 살며 학교에서 모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남은 장사이다.

### 여덟 살은 여덟 살의 삶의 무게로 살아간다.

하루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교실에서 아이가 어제까지 별일 없이 집에 돌아온 건 진짜 기적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삶 속에는 고군분투가 녹아있었다. 학교생활에서 겪은 실패와 속상함, 고민과 눈치 사이를 헤쳐 가며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을 보니 감사하다. 첫 번째, 내 아이에게 감사하고, 두 번째, 내 아이 주변 친구에게 감사하고, 셋째, 내 아이를 온전히 돌본 선생님께도 감사한 일이다. 오늘부터 잊지 말고 무사히 돌아온 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며 모든 것에 감사 기도를 해보자. 여덟 살 아이의 하루는 결코 마흔 살 부모의 하루보다 가볍지 않다.

### 선생님도 진짜 놀라셨겠네요.

‘선생님은 그때 뭐 하셨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선생님이 이 전화를 받고 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 온 상

황,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일까? 안타깝지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하고했다는 것은 감사이고 기적이다.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도 ‘선생님도 진짜 놀라셨겠네요.’라는 첫마디로 시작해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

### 행복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바꾸기보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지에 대한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 행복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는 그저 자랄 뿐이다. 공부나 성적은 아이의 몫, 부모는 울타리 안에서 충분히 책 읽고, 자연과 함께 놀게 해주면 된다. 그렇게 집에서 ‘엄마, 아빠’만 하면 된다. 선생님은 학교에 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한다. 부모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초등학교 입학? 문제없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혹은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불안한 마음을 가진 학부모들이여 우리 아이를 한번 믿어보고, 기다리고, 응원해 보자.

오늘 유·초·이음 학기 보호자 교육이 학부모로서의 삶에 던져진 숙제를 푸는데 소박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바로 쓰는 알쏭달쏭 우리말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연구소

##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십시오’가 아닌 ‘ㅅㅅㅅ’입니다. ‘하십시오’와 같이 ‘오’를 사용하면 됩니다.

## 오랜만에 뵙네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오랜만’은 ‘오래간만’의 준말로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뒤’를 말하고 싶을 때는 ‘오랜만에’, ‘오래간만에’와 같이 쓰면 됩니다.

## 정말 희한한 일이다.

‘희한하다’는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라는 뜻으로 ‘드물 희(稀)’와 ‘드물 한(罕)’을 사용합니다. ‘희안하다는’ ‘희한하다’의 비표준어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는 불문에 부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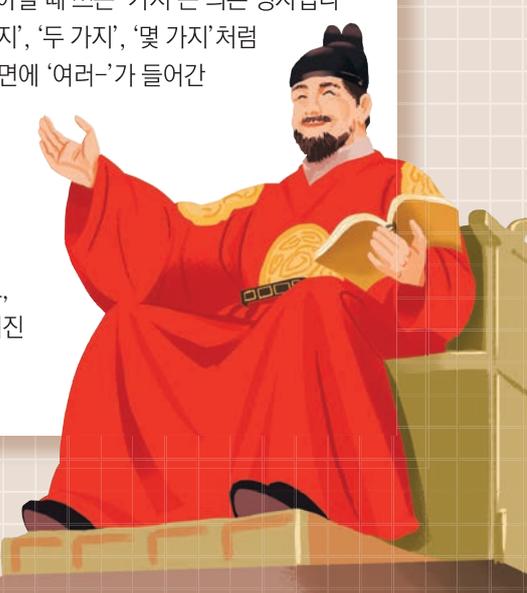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부치다’는 사물/대상과의 실제적 접촉 없이 추상적/간접적/심리적으로 관련시키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부치다’는 ‘편지/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예: 짐을 외국으로 부치다),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예: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의 뜻 정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예문처럼 ‘불문에 부치다’로 쓸 때는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회의 내용을 극비에 부치다’ 또는 ‘과거의 죄상은 모두 불문에 부친다’는 식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어.

‘여러 가지’에서 ‘여러’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띄어서 써야 합니다. 또한, 종류별로 낱말이 헤아릴 때 쓰는 ‘가지’는 의존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는 혼자 쓰이지 못하지만, 문법적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처럼 앞말과 반드시 띄어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우에도 띄어쓰기를 해서 표현합니다. 반면에 ‘여러-’가 들어간 복합어의 경우에는 일부 붙여서 쓰는데, ‘여러분’이나 ‘여러모로’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모로’는 ‘여러 방면으로’를 뜻하는 부사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적습니다.

## 이 중에는 없고, 그중에도 없었다.

‘이 중’은 두 낱말이기 때문에 띄어서 씁니다. ‘그중’은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의 뜻으로, 한 낱말이기 때문에 붙여서 씁니다. ‘이’와 ‘중’은 각각의 단어이지만, ‘그중’은 복합어로 굳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낱말로 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누리소통망(SNS)에 놀러오세요!



메타버스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